

마곡리·馬谷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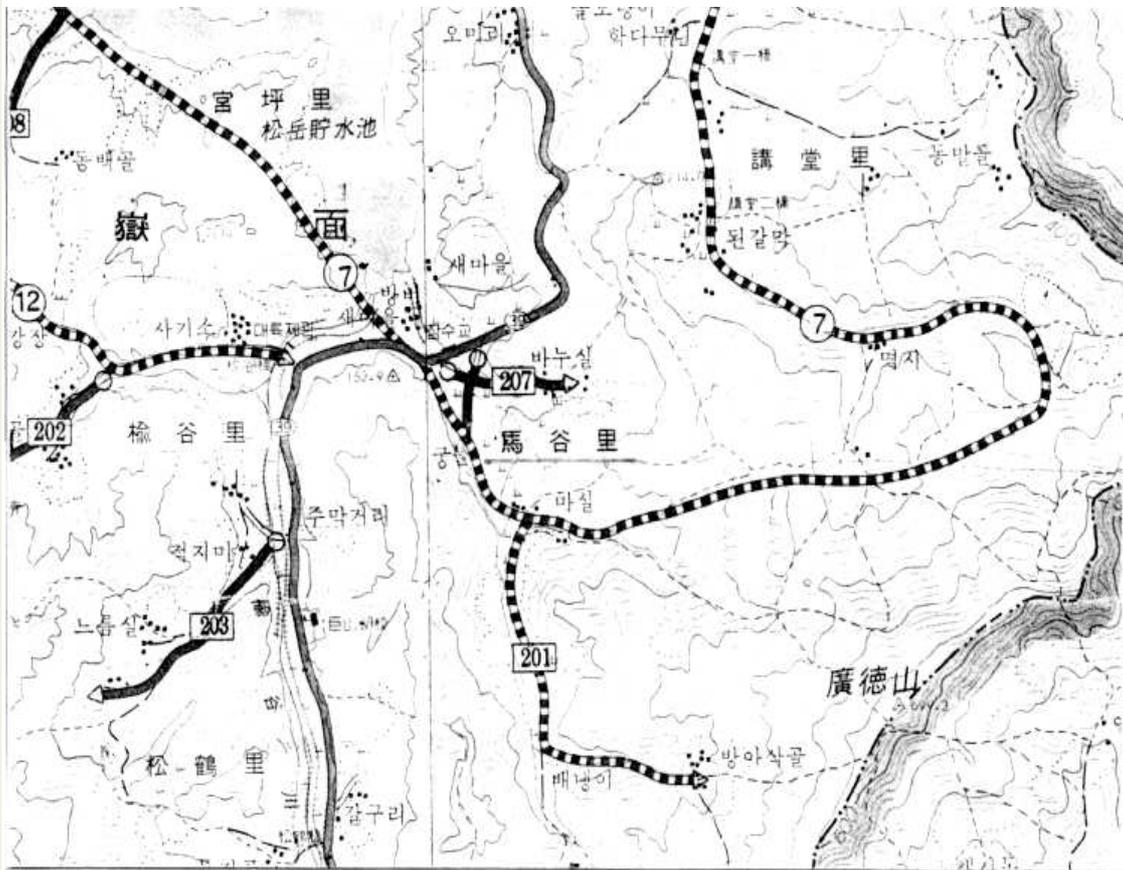
# 마곡리·馬谷里

< 구연자 : 충남 아산시 마곡 1리 전의수 氏 (46세)

충남 아산시 마곡 2리 유영렬 氏 (75세) >

마곡리는 송악면의 한마을로 두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곡1리를 마실이라하고, 2리를 바느실이라 부른다. 마을의 가구수는 85호이며 인구수는 228명에 이른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기타 업종에도 종사한다. 본래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역촌리에 시흥역이 있을 때 이 곳에 말을 먹였으므로 마실 또는 마곡이라 하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 되었다. 마곡리는 오미니 고개를 넘어 언덕을 내려오면 좌측으로 산속 깊은곳에 위치한 마을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마을 이름 끝자가 '실'자가 들어가는 곳은 옥녀가 베를 짜는 형상이라 하는데 마을 근방에 실자가 들어가는 마을이 여러개 있다. 바느실은 옛날 침곡동이라 불리웠으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다.

< 마곡리 위치도 >



## ☒ 마실마을, 바느실 마을 (마곡리)

마곡1리는 방아작골, 배뎡이, 마실마을로 구분되며, 마실마을은 이즈때 시흥역의 말을 이곳에서 먹였다 하여 마실이란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마실은 바느실 마을 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을 들어가면 산기슭에 웅기중기 모여 살고 있으며, 방아작골 마을은 마실 옆에 있는 마을로 방앗간이 있다 하여 유래 되었으며, 배뎡이 마을은 마실 옆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조개모양이라 하여 배뎡이 마을이라 불리워졌다.

마곡2리는 마실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서 지형이 바늘과 같다하여 침곡동이라 불리웠

으며, 전해오는 말로는 마을 명칭에 실이 들어가는 마을은 옥녀가 베를 짜는 형의 지명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피난지였다고도 한다. 그래서 6.25때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에 피난을 와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현재 논이 있는 곳에 버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밖에서는 전혀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버드나무 한그루 없이 잘라 버리고 그곳에 논농사를 짓고 있다.

< 조사당시 마곡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마실 마을은 위도 36-41-40, 경도 127-00-3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약3.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39번 도로를 타고 가다 잠수교 앞에서 내려 약 300 m 정도 걸어 들어가면 마을이 있다.

바느실 마을은 위도 36-42-10, 경도 127-00-30인 지역에 위치해 있고, 마실마을 북쪽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오미니 고개를 넘어 내려가다 막바지 좌측으로 마을 입구가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산모퉁이를 따라 들어가면 마을이 길게 형성되어 있다.

**2) 현황**

마실은 한 마을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인구는 155명으로 남자 78명, 여자 77명이며, 호구수는 55호에 이른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일부는 기타 업종에 종사한다.

바느실 마을의 인구수는 남자 38명, 여자 35명으로 총 73명이 살고 있고 호구수는 30호에 이른다. 젊은층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 살고 있으며, 주민 9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마실 마을	155명	78명	77명
바느실 마을	73명	38명	35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마실 마을	100%	87%	13%
바느실 마을	100%	97%	3%

마실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23.7ha, 밭 11.4ha로 산골임에도 산 주변을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산골이라 하여 다른 마을보다 농사 면적이 비옥한 편은 아니다.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이앙기, 관리기, 탈곡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등이 농사에 이용되고 있고,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를 가지고 있다.

바느실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농경지 면적은 논 14.1ha, 밭 13ha로 논과 밭의 면적이 비슷하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탈곡기, 콤바인, 건조기등이 있다.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마실 마을	35.1ha	23.7ha	11.4ha
바느실 마을	27.1ha	14.1ha	13ha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문고	기타시설
마실 마을	1개소	1개소	-	-	-
바느실 마을	1개소	1개소	-	-	-

마실 마을의 성씨를 보면 박씨 11%, 안씨 11%, 기타 성씨는 78%의 분포를 보이며,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느실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안씨 20%, 이씨 17%, 기타성씨 63%로 이루어져 있고,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일부 거산분교로 통학하고 있지만, 대부분 송남 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다. 또한, 중학생은 모두 송남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온양시내로 통학을 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박씨	안씨	이씨	기타
마실 마을	55호	6호	6호	-	43호
바느실 마을	30호	-	6호	5호	19호

- 최고령자

마실 마을의 최고령자는 전 순예 할머니로 올해 95세이시고, 바느실 마을의 최고령자는 변 재순 할머니로 올해 90세이며 건강하신 편이다.

3) 자연 경관

마실 마을은 산 속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마을로서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안쪽으로 마을이 웅기종기 모여있다. 또한 마을을 들어가다 보면 느티나무를 세그루 만나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느티나무가 500년이 되었고 두 그루는 10년 정도밖에 안되었다. 원래 이 10년된 두 그루 나무도 오래된 나무였는데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배를 만든다고 잘라 버린후로 근래에 들어와 마을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심었다 한다. 천마봉은 마실 위에 있는 산으로 말의 형상을 닮았다 하며 옛날 무학대사가 천마봉을 보고 명당자리라 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아 놓았다고 전해진다. 마을 가운데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데 다슬기가 많이 서식하고, 주변으로 밤나무와 호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바느실 마을의 가옥은 산이 많아 잘 보이지 않으며 산 밑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입구에 버드나무가 울창해서 밖에서 보면 마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6.25때 인민군이 바느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앞길로 지나갔다 한다. 마을주위에는 참새골과 독사골이 있는데 참새골은 참새가 유난히 많아 붙여진 이름이며 독사골에는 밤나무가 많은데 그곳에 독사가 많아 아직도 땅꾼들이 모여 들고 있다고 한다.

4) 마을 변천과정

마실마을과 바느실 마을은 본래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역촌리에 시흥역이 있을 때 이곳에서 말을 먹였으므로 마실 또는 마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침곡리를 병합하여 마곡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도 아산시로 개편되었다.

5) 입 향

마실 마을의 형성은 서기 1500년경 약 500년정도 되지만 더 오래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된다. 그 이유는 마을앞 느티나무의 수령이 대략 500년이 넘었으니 마을의 형성년대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한 것이다. 터를 잡은 성씨는 이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허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살고 있지 않으며, 마을사람들도 전해져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한다.

바느실 마을은 마을에 솔공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형성년대가 조선시대쯤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6.25정도 이후로 알려져 있다. 마을에는 유씨와 안씨가 가장 오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죽거나 떠나서 없으며 현재 유영렬씨가 7대째 살고 있어 형성년대는 서기 1750년경 약 210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6) 지 명

十 마실마을의 지명

⌊마실: 이 곳에서 이조때 시흥역의 말을 먹였다 함.

⌊합샛들: 마실앞에 있는 들.

⌊영덕사: 방아삭골 계곡에 세워진 절, 1994년에 세움. 종파는 천태종이다.

⌊분청사기 요지: 마실의 산과 밭이 이어지는 능선에 있다. 분청사기 편이 발견된다.

⌊방아삭골: 마실옆에 있는 마을. 방앗간이 있었음.

⌊배댕이: 마실 옆에 있는 마을, 지형이 조개와 같다 함.

十 바느실 마을의 지명

⌊바느실(침곡동): 마실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지형이 바늘과 같이 생겼음.

⌊마곡 야철지: 바느실에 있다. 산화된 철편등이 발견됐음.

·참새골 : 마을 옆 산기슭에 골짜기로 참새가 많았다하여 불리게 됨.

·독사골 : 마을좌측 산기슭으로 독사가 많았다고하여 불리게 되었으며, 지금도 땅꾼이 이곳을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 7) 전 설

### 十 마실마을의 전설

천마봉에 일본 사람들이 쇠말뚝을 박아 혈을 끊어버리자 그곳에서 피가 나왔다고 한다. 혈액을 끊지 않았다면 삼국을 통일 시킬만한 장군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쇠말뚝이 없어지려면 400년이 지나야 한다고 한다.

### 十 바느실마을 전설

바느실 마을에 전해오는 특별한 전설은 없지만, 특이할만한 것은 산의 고랑이 바늘 혈처럼 생겼으며 조선시대에는 두 군데의 술공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마을 앞으로 있는 논이 옛날에는 큰 버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멀리에서도 마을이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였으며, 심지어 6.25때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숨어 있을만큼 외진곳이었다고 한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마실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로는 대동계와 우친계가 있는데 대동계는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우친계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계조직이다. 한편 세 그루의 느티나무에 정월 초하루가 되면 노신제를 지낸다. 500년이 된 이 느티나무는 허씨라는 사람이 심었다 하며, 옛날에 이 마을에 허씨, 정씨, 원씨 이렇게 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들이 죽기전에 유언으로 땅을 모두 물려줄테니 그곳에 자기 묘를 돌보아 달라고 했으나 5년전 그 땅이 시(군)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들의 묘를 돌보지 못했다 한다. 또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산신제인데 다른 마을처럼 황토흙을 마을입구에 놓고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는다고 하며, 이날만큼은 싸움이나 피를 보아서는 안된다.

바느실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으며, 단지 마을 위쪽으로 밭 한가운데 돌미륵이란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한동안 무속인이 와서 그 바위를 위하고 제를 올렸는데 지금은 제를 올리는 일은 없어졌다고 한다.

## 9)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

### 10) 종교단체

마실 마을에는 두 개의 절이 있는데 영덕사와 온양불국사이다. 영덕사는 작은 절이며, 신도수도 10여명에 이를 정도로 작고, 온양불국사는 오래된 만큼 신도수도 300여명정도로 많은 편이다. 바느실 마을에는 종교단체가 없으며, 마을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마을앞 느티나무에 노신제를 지내는 곳이 많은데 이 마을은 전혀 지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나 무속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 11) 공장현황

마실 마을에는 장식용 목재가구를 만드는 작은 공장이 있는데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고, 종업원수도 6명으로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며, 바느실 마을에는 공장이 없고,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

力 우미 :마곡산 4-5, 허가일 94. 9. 29. 면적 2,909㎡, 종업원수 6명, 장식용 목재가구

### 12) 마을의 특성

마실 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마을이며, 교통편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마을 사람들은 심성은 매우 좋고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바느실 마을은 주위에 산이 많아 산골마을로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제외한 특별한 소득이 없으며,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따르지만 마을은 아름다운 시골 정경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따스하고 정겨운 마을이다.